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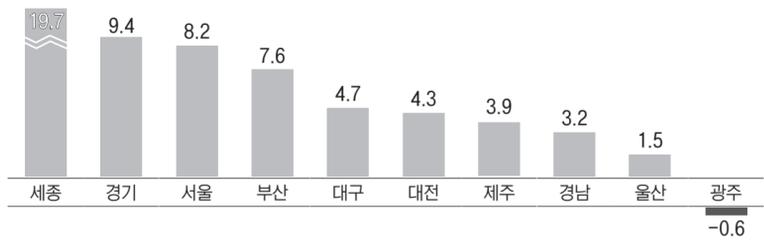
얼어붙은 광주 소비...3분기 백화점·대형마트 매출 '뚝'

백화점 3곳 244억원 11.7% 감소...2015년 집계 이후 최저 기록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연말 유통가 소비 반등 어려울 듯
광주 대형마트 매출 2081억...전국 10개 시·도 중 유일 '마이너스'

광주 백화점들의 올해 3분기 매출은 1838억 3000만원으로, 통계를 발표한 2015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심각했던 이 기간 동안 광주 대형마트 매출은 전국 10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었다.
연말을 맞아 지역 유통가는 소비 반등을 노렸지만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하며 매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 올해 3분기(7-9월) 광주 백화점 3곳의 매출은 1838억3000만원(잠정)으로, 1년 전보다 244억원(-11.7%) 감소했다.
올 3분기 전국 백화점 매출 감소율은 5.9%인데, 광주 감소 폭은 이보다 2배 컸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광주 백화점 매출은 2561억7700억원을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냈지만, 올해 들어 1분기 1854억4300만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27.6%(-707억3400만원) 급감했다.

■3분기 10개 시·도 대형마트 매출 증감률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진 2분기 매출은 2259억23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오히려 8.4%(174억6400만원) 증가했다.
하반기 들어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며 광주 백화점 매출은 통계를 발표한 2015년 이후 최저를 기록

하게 됐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광주 12개 대형마트는 매출을 공개하는 전국 10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올 3분기 광주에서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

형마트의 총 매출은 2081억4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0.6%(-11억7800만원)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대형마트 매출이 5998억8800만원(7%) 오른 것과 대조된다.
대형마트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9.7%)이었고, 경기(9.4%), 서울(8.2%), 부산(7.6%), 대구(4.7%), 대전(4.3%), 제주(3.9%), 경남(3.2%), 울산(1.5%) 등 광주를 제외한 9개 시·도는 모두 지난해 동분기보다 매출이 올랐다.
대형마트 3사는 여름과 가을 생필품과 신선식품 위주로 대규모 할인전을 벌여왔다.
매장면적 3000㎡ 이상 백화점이 없는 전남 등 일부 시·도는 기업체 영업비밀 유지를 이유로 매출 관련 통계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백화점에 겨울이 왔어요”

광주신세계 '화이트 빌리지' 조성

㈜광주신세계는 18일 '화이트 빌리지'를 주제로 1층 광장을 새롭게 꾸몄다고 이날 밝혔다.
이 공간은 완연한 겨울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됐다. 함박눈이 내린 마을과 자작나무 숲, 귀여운 백곰 등으로 꾸며졌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한 화이트 빌리지는 고객들에 본격적인 겨울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를 전하고자 마련했다”며 “사진찍기 좋은 공간으로 고객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겨울 의류로 매장을 채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스스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성 경량 패딩' 상의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3층 '데루' 매장이 내놓은 패딩 제품 '타이온 엑스트라'에는 난방 시스템이 탑재돼 있다.
기층 부분에 붙어있는 스위치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열 패널은 원적외선을 방출한다.
체온과 원적외선이 순환되며 몸 속 따뜻함을 유지시켜준다고 롯데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8일 ㈜광주신세계를 찾은 고객들이 1층 광장에 새로 마련된 '화이트 빌리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보해, 과일맛 소주로 동남아 입맛 사로잡는다

'원샷소주' 싱가포르 수출 이어
베트남에 '아라소주' 23만병 수출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해외수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지난달 싱가포르에 과일맛 원샷소주를 수출한 데 이어 베트남에 수출을 성사시키는 등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18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보해양조는 이달 중 베트남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아라소주' 23만병을 수출하기로 했다.
아라소주는 동남아시아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수출전용 제품으로, 오리지널을 비롯해 블루베리, 복숭아, 청사과 및 등 총 4가지가 있다. 알코올 도수는 12도, 용량은 360ml이다.
이번에 수출될 제품들은 제품명과 맛 등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방탄소년단(BTS) 등을 비롯한 한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글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해양조는 설명했다.
보해양조는 현지 무역업체인 KORICE와 함께 과일소주를 좋아하는 베트남 소비자들을 위해 청포도맛 등 추가제품 생산 및 수출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복숭아맛 소주 '달콤'을 호주에



원쪽부터 복숭아·오리지널·블루베리 아라소주
선보인 뒤 지난달 싱가포르에 수박맛, 청포도맛 등 과일맛의 '원샷소주'를 수출한 바 있다.
현재 보해양조는 동남아시아 외에도 전세계 33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29%)을 비롯해 일본(20%), 말레이시아(11%), 베트남(8%), 중국(6%), 싱가포르·대만 등 기타(26%) 등 순이다.
그중에서도 보해복분자주가 수출비중 36.8%를 차지하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소주(23%)와 매취순(19%) 등의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다.
/백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이마트, 위생과 맛 챙긴 실내 냉풍 건조 '햇굴비' 판매

25일까지 마리당 820원 판매

광주·전남 7곳을 포함한 전국 이마트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햇굴비를 한마리당 820원에 살 수 있는 할인전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참조기를 건조한 굴비를 신세계 포인트 적립 때 10마리 묶음을 82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는 기존보다 6600원 할인된 가격이다.
판매 굴비는 여수와 목포, 제주 바다에서 지난 8~10월 수확해 실내에서 바로 냉풍 건조한 '햇굴비'이다. 길이는 15-19cm 정도다.
이마트 측은 올해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굴비 건조가 어려운 상황이라 실내 냉풍 건조를 적극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내 냉풍 건조로 물

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가격도 낮출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햇굴비는 3년 이상 간수를 뺀 국내산 천일염을 이용해 아가미에 간을 하는 방식인 '쇼간방식'을 적용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잡박' 수요가 늘면서, 이마트의 1-10월 수산물 매출은 ▲굴비 8.9% ▲삼치 16.5% ▲고등어 13.7% ▲가자미 3.2% 등 증가세를 보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겨울엔 역시 고구마”...이마트 고구마 매출 33.1% 증가

겨울 간식의 대명사 고구마 매출이 크게 올랐다.
18일 광주지역 4개 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1-11일 이들 매장의 고구마 매출은 1년 전보다 33.1% 증가했다. 밤이 길어지면서 고구마를 포함한 야식 상품이 인기다.
같은 기간 냉동간편간식 매출은 40.8% 뛰었고,

이 가운데 튀김 132.9%, 핫도그 64.1%, 피자 27.4% 등 증가율도 높았다.
안주류 가운데서는 오뎀 118.7%, 막창 37.8%, 닭발 22.4% 등이 인기를 끌었다.
이마트 '피코크' 올해 매출은 지난해 순대와 소시지가 1-2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오뎀, 막창이 이들을 제치고 올라섰다.
/백희준 기자 bhj@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 作 名 作 名 作

광화문父子작명가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 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 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